

# 장흥토요시장, 비가림·도시가스 사업 준공 '새단장'



### 사업비 7억원 투입...총연장 112m 비가림시설 설치

### 김성 군수 "토요시장 방문객 편의 높여 소비촉진할 것"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비가림시설과 도시가스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상인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비가림시설은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성했다. 눈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연장 112m, 면적 931㎡ 규모의 반아케이드형으로 설치했다. 막구조물에 사용된 자재(PVF)는 내연성 물질로 불 속에서는 연소하지만 불 밖에서는 저절로 꺼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화재 시 안전하고, 내구연한도 20년 이상 장기간이다.

시장 내 점포 60개소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됐다. 기존 LPG 용기 대비 40% 가량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토요시장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방문객 편의를 높여 소비촉진 및 내수경제 진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대면 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23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처음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공격성 있는 반려견 및 맹견의 입마개 착용 등 산책 시 의무사항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목줄 착용 및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대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홍보물 각 가정 배부와 매주 2회 이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으로도 강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교육'을 2월 말까지 전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대면으로 홍보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존의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 부문 수상

### 브랜드 이미지 독창성, 브랜드 경영 비전과 전략에서 높이 평가

완도군은 1월 2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24 K-브랜드 어워즈」의 'K-도시(해양치유 도시)' 부문에서 기관상을 수상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K-브랜드 어워즈」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 및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완도군은 'K-도시' 부문에서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해양치유 완도(Marine Healing

Wando)' 브랜드 이미지의 독창성, 브랜드 경영 비전과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치유 완도(Marine Healing Wando)' 브랜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이 열리며 따라 우리나라 치유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이다. 완도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중이며, 지난 2017년 해

양치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공공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딸라스폴과 명상폴,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등 총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으며, 개관 두 달여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해양치유가 더욱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인구 유입과 농수축산업 동반성



장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주민 밀착 소통 위한 2024년 군민과의 대화 개최

진도군이 25일부터 '2024년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진도'라는 주제로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읍면 순회 순서는 ▲25일(목) 10시 진도읍, 14시 군내면 ▲26일(금) 10시 고군면, 14시 의신면 ▲29일(월) 10시 임회면, 14시 지산면 ▲30일(화) 10시 조도면 등이다. 군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나온 154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기별로 주민건의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해 군민과 함께 이룬 군정 핵심 성과와 2024년 군정 비전, 주요 군정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해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분야별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군민과의 대화로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배추 맛 보세요"...美 한남체인 5개점서 판촉 행사



## 30일까지 해남농수산물 판매 김치, 쌀, 잡곡, 김 등 15개 품목

해남군은 30일까지 미국 내 한남체인 5개점에서 해남농수산물 판촉행사를 연다. 22일 군에 따르면 한남체인은 미국 내에서 9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전문마켓이다.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는 플러튼점을 비롯해 5개 매장에서 김치 특판행사를 비롯해 한눈에 반한 쌀, 잡곡, 고구마칩, 김, 미역 등 미국 바이어에 의해 최종 선정된 15개 품목을 판매한다. 군은 행사장 내 소비자 대상 시식행사와 현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1억7000여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최근 열린 김치 담그기 행사가 현지 요리사와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 인기를 끌었다"며 "이번에는 소비자 대상 해남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특판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군은 9월 LA 한인축제 참가와 함께 다양한 미국 오프라인마켓과 연계한 특판행사도 추가로 기획해 수출확대를 통한 미국시장 판로 확보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 9~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내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와 수출 업무협약을 맺고, 현지업체와 수출협의를 진행해 해남쌀과 해남김의 수출 협의를 갖는 등 해남농수산물 수출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진흥원